

면접 교섭 안내서

- 충실한 부모자녀 교류를 계속하기 위하여 -



면접교섭은 아이의 성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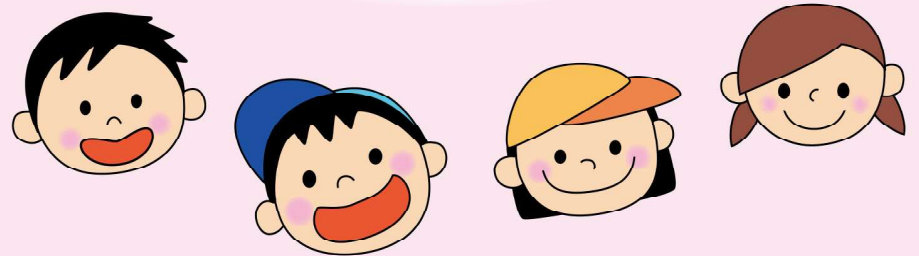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에서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자녀를 위해 서로 힘을 보태 협력합니다. 자녀에게는 양쪽 모두가 소중한 부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면접교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자녀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유연한 태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된 뒤로도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 합니다.

면접교섭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아이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내서는 면접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가정법원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등에 관해서는 아이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여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민법 766조)

1.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아이의 감호를 담당하는 자 또는 감호의 부담, 부친 또는 모친과 아이와의 면접교섭, 아이의 감호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그 밖의 아이의 감호에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로 정한다. 이 경우, 아이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이 동 항의 사항을 정한다!

자녀와 떨어져 살고 계신 분에게

면접교섭의 일자나 시간, 장소 등은 아이의 건강상태, 생활 리듬, 일정에 맞춥시다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학교, 과외활동, 학원 등의 스케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녀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날짜와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정해서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정한 면접교섭 약속은 지킵시다.

사전에 정한 면접교섭 약속은 지킵시다.
특히 면접교섭을 마치는 시간이나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 등을 상대방과 상의 없이 바꾸는 일을 삼갑시다.
또, 급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합니다.

자녀와 만나기 전에

자녀와 만날 때

자녀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부모의 상황을 꼬치꼬치 캐물으면 자녀의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학교 행사, 최근의 기분 좋은 뉴스 등, 자녀가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화제를 만들고 당신은 잘 들어주도록 합니다..

고가의 선물이나 지나친 서비스는 삼갑시다.

고가의 선물 등으로 자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건이나 금전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부모 간에 서로 논의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상담하지 않고 자녀와 약속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상담하지 않고 자녀와 '여행 가서 자고 오자'는 등의 약속을 하면 자녀에게 꺼림직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자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부모 간의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간의 대화로 정하고, 자녀가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분에게

자녀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자녀의 건강 상태나 학교의 행사 예정, 노력하고 있는 것이나 그 성과 등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에게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달해 두면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에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원활한 면접교섭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부부 다툼이나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자녀에게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자녀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할 때는 그 이유를 잘 들어 봅시다.

만일 아이가 면접교섭을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동안 서로의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를 돌아봅시다.
또한 아이가 말한 이유를 구실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새로운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럴 때는 부모 간에 냉정하게 대화를 합니다.

자녀가 교류에 나가기 전에

아이가 면접교섭을 위해 외출할 때는 웃는 얼굴로 배웅해 줍시다.

자녀는 부모의 기분이나 표정에 민감합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이나 표정, 동작으로 인해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와 만나는 것을 꺼림직하게 느끼거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면접교섭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돌아오면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 줍시다.

자녀는 당신의 눈치를 보고 무거운 기분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또한 면접교섭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캐물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가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해 줌으로써 자녀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자녀가 돌아오면